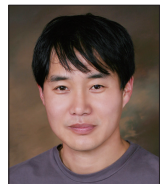




동물들은 원래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최종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야생동물들은 원래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유행성 감기(영어로는 flu)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를 말한다. 해년마다 다양한 변이를 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 백신을 만들지는 못하고 주로 고정항원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미약하게나마 대처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도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손을 놓고 살던 질병에 속했으나, 현재는 인간에게 치명적일지도 모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등장으로 이런 백신요법에다 '타미플루'라는 고가의 항 인플루엔자 치료제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역시 이것들만 가지고는 여전히 그 위세를 감당할 수 없기에 늘 세계 어디선가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면 위기감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감기는 사실 별 질병도 아니었다. '치료하면 일주일 놔두면 칠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병원에 가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2차 감염을 막는 소염제나 항생제를 처방해 줄 뿐이었다. 지금도 병원에서 쓰는 감기약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지금의 감기의 강도는 '놔두면 2달, 치료하면 1달' 정도 가는 무서운 재앙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나 역시 감기라면 무시하고 살았는데 요즘 감기에 걸리면 반사적으로 겁부터 난다. 코끝에서 시작된 증상은 거의 폐 가까이 이르러야 끝을 맺고 코끝과 입 꼬리에 헤르페스 등 수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유행만 했다하면 또 다시 걸린다. 아예 연중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나같이 느끼리라 짐작한다. 이제 감기를

두고 잤은 감기는 장수의 근원이라느니, 감기 그까잇 것하며 약수터에서 냉수마찰로 마초의 힘을 자랑하는 이들도 보기 힘들어 졌다.

감기의 역사에서 보면 감기는 지독히 인간적이다. 감기의 시작 역시 인간에게서 부터이다. 인간은 집을 갖고, 옷을 입고, 모여 살면서부터 자연에선 약한 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이 녀석의 필연적인 숙주가 되었다. 인공물에 몸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자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외계에 노출되면 죽어버리는 바이러스는 개체수의 집중으로 인한 잦은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급속히 번져 나갔다.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이 녀석들은 인간이 전쟁 같은 몸과 정신력의 빈틈을 보였다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괴물로 변화하기도 했다. 과거 유럽(스페인)독감, 홍콩독감은 세계인구의 거의 1/10을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동물들은 대부분 여전히 건재했다. 이유는 거친 야생에 노출된 생활방식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 역사에서 그러했듯 가뉘 기르는 편안한(?) 가축들에게서 서서히 인플루엔자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고 있다. 처음에 가장 밀사가 심한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서, 이번엔 그 두 번째라 할 수 있는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말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후보는 아마도 소나 양이 될 것이다. 애완동물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군에 속한다. 대개 애완동물은 인간과 닮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은 그나마 부드러웠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 동물을 거쳐 다시 인간에게 올 때는 녀석들은 거의 일당백의 정예용사가 될 수 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종숙주에게서 크나 큰 고생으로 체질이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희망사항이라면 이 전이 과정에서 또한 오히려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 범인인 나는 잘 모른다. 현재는 '제발!' 하며 그저 넋 놓고 자연만 지켜볼 뿐이다. 이때쯤 노벨상을 서너 개쯤 몰아줘도 좋을 천재적인 과학자가 한 명쯤 째하고 나타나 주었으면 오죽 좋을까! 아니면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정치적인 큰 결단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전 세계의 가축을 너른 자연으로 다 해방시키는 것 같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니 손 씻기나 열심히 하는 수 밖에.🐾

